

## 黃庭堅의 戲作詞 창작 태도와 그 영향

김 은 경\*

— <目次> —

- |                         |                  |
|-------------------------|------------------|
| I. 들어가며                 | IV. 宋代 戲作詞 창작 경향 |
| II. 遊戲적 수단으로서 오락기능 추구   | V. 나가며           |
| III. 眞情의 표현을 위한 서정기능 실천 |                  |

### I. 들어가며

《說文解字》에서 “俳는 戲이다. 표의부가 人이고, 표음부가 非인 형성자이다.”<sup>1)</sup>라고 하였다. 이에 段玉裁가 주를 달아 “戲言으로 말하는 것을 俳라하고 음악으로 말하는 것을 倡이라하며 또한 優라고도 한다.”<sup>2)</sup>라고 설명하였다. 예로부터 문인들은 이러한 “俳”를 “俳諧, 滑稽, 談諧, 諧謔, 戲謔” 등과 같은 의미로 시가창작에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희작사를 俳諧詞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俳諧詞를 정의하는 범위나 작품의 내용에 따라 희작사가 俳諧詞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王毅는 《宋代俳諧詞研究》에서 《說文解字》에서부터 현대 논저들까지 참고하여 俳諧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俳諧詞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었다. 즉 “俠義의 배해서는 희극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俳, 戲也. 從人, 非聲.” 許慎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 자유문고, 2015, 468쪽.

2) “以其戲言言之謂之俳, 以其音樂言之謂之倡, 亦謂之優.” 같은 책, 468쪽.

는 詞를 가리키며, 골계나 풍자, 유모 등 어떠한 수법을 사용하던지 읽는 이로 하여금 해학적인 재미를 느끼게 하는 詞이다. 廣義의 배해사는 이러한 작품 이외에 回文詞, 集句詞, 櫟括詞 등 작가의 지혜와 기교가 반영된 문자유희의 詞와 題序에 ‘嘲’나 ‘戲’를 명시한 詞, 내용이 경박하고 통속적인 구어가 사용된 俗詞 또한 포함한다.”<sup>3)</sup>고 하였다. 즉 넓은 의미에서 戲作詞는 俳諧詞의 일부에 속하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유머나 풍자 등 해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황정건의 희작사는 바로 詞의 題序에 “戲”字를 명시한 작품이다.

杜甫는 처음으로 詩의 題序에 “戲”字를 써 戲題詩 〈戲作俳諧體遺悶二首〉를 지었고, 詞의 題序에 처음으로 “戲”字를 쓴 사인은 蘇軾으로, 熙寧 7년(1074)에 전사한 〈減字木蘭花〉(惟熊佳夢)에 “吳興을 지나노라니 李公擇이 아들을 낳아 3일 동안 손님을 모아 잔치를 벌이기에 이 사를 지어서 농담한다.(過吳興, 李公擇生子, 三日會客, 作此詞戲之.)”라는 題序를 붙였다.<sup>4)</sup> 비록 희작사가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처음으로 다량의 戲作詞를 전사한 사인은 바로 소식의 문인인 黃庭堅이다.

黃庭堅은 총 190수의 작품에 89條의 題序를 병기하였으며, 그 중 18條의 제서에 “戲”字를 사용하였다. 소식을 시작으로 북송 중후기에 전사되기 시작한 희작사는 남송말기에 이르러 점차 쇠락하였는데, 《全宋詞》에 수록된 희작사는 100首 미만으로 그 수량이 적은 편이다. 宋代 대표 작가들의 희작사 작품 수는 아래 표와 같다.<sup>5)</sup>

3) 王毅, 《宋代俳諧詞研究》, 南京師範大學, 2003, 碩士, 16쪽.

4) 蘇軾은 총 6首의 戲作詞를 지음. 〈減字木蘭花〉(惟熊佳夢), 〈嬋人嬌〉(別駕來時), 〈少年游〉(玉肌鉛粉傲秋霜), 〈如夢令〉(水垢何曾相受)·(自淨方能淨彼) 2首, 〈西江月〉(怪此花枝怨泣).

5) 필자는 唐圭璋 編, 《全宋詞》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각 詞人들의 題序에 “戲”字가 명시된 작품을 조사하였으며, 그 작품 수를 표로 나타냄.

작가	작품 수	작가	작품 수
蘇軾	6首	辛棄疾	26首
黃庭堅	18首	劉克莊	8首
毛滂	7首	張孝祥	4首
周紫芝	8首	姜夔	4首
向子諲	19首	周密	4首
韓元吉	5首	周必大	3首

위 표에서 보여지 듯 황정건은 북송 중후기 희작사 창작의 시작 단계에 있으나, 辛棄疾과 向子諲 다음으로 많은 수의 희작사를 창작하였다. 그의 희작사 18수의 편년과 전사 지역을 보자.

편년/장소	詞牌	首句
초임시기	滿庭芳	風力驅寒
元豐 3년(1080)/ 吉州(지금의 江西省 吉安)	菩薩蠻	半煙半雨溪橋畔
	漁家傲	萬水千山來此土
	漁家傲	三十年來無孔竅
	漁家傲	憶昔藥山生一虎
	漁家傲	百丈峯頭開古鏡
紹聖 3년(1096)/ 黔州(지금의 四川省 彭水)	減字木蘭花	舉頭無語
	減字木蘭花	月中笑語
元符 2년(1099)/ 戎州(지금의 四川省 宜賓)	望遠行	自見來
	醉落魄	陶陶兀兀, 尊前是我華胥國
	醉落魄	陶陶兀兀, 人生無累何由得
	醉落魄	陶陶兀兀, 人生夢裏槐安國
	醉落魄	陶陶兀兀, 醉鄉路遠歸不得
	謁金門	山又水
紹聖 3년 후(1096년 이후)	河傳	心情老懶
편년미상	漁家傲	踏破草鞋參到了
	定風波	歌舞闌珊退晚妝
	鼓笛令	酒闌命友閑爲戲

황정견 희작사의 편년을 살펴보면 填詞 시기를 알 수 있는 15수 가운데 9수의 희작사가 蜀地에서 귀양 생활을 할 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황정견은 治平 4年(1067) 23세에 진사에 급제한 후 元豐 8年(1085) 秘書省校書郎으로 임명되면서 汴京생활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神宗이 죽고 哲宗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新派의 등용과 함께 舊派는 좌천과 유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황정견도 元祐 年間に 편찬한 神宗實錄이 문제가 되어 紹聖 2年(1095) 지금의 四川省 涪陵인 涪州, 黔州로 좌천되었고, 元符 元年(1098)에 다시 戎州로 좌천되어 哲宗이 죽고 徽宗이 즉위할 때까지 蜀地에 安置되었다.

蜀地에서 6년간의 유배생활을 하면서 지은 희작사의 작품 수(詞 전체의 4.7%)는 그의 詩와 비교해 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 황정견은 약 1500首의 詩 중 140首의 戲題詩를 지었으며 그 중 蜀地에서 지은 詩는 단지 5首(0.3%)에 불과하다.<sup>6)</sup> 이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비록 題序에 “戲”자를 적어 “장남삼아” 혹은 “재미로” 전사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작가의 의도된 바가 있을 것이며, 좁게는 황정견 개인의 詞作 성취 면이나 넓게는 宋代 戲作詞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그의 戲作詞에 나타나는 창작 태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北宋 中期이후 南宋에 이르기 까지 대표 詞人들의 戲作詞 창작 경향을 종합하여 황정견의 戲作詞 창작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遊戲적 수단으로서의 오락기능 추구

唐五代부터 北宋前期에 이르기까지 사는 “小道”나 “餘技”로 간주되어 연회나 주연 자리에서 빈객들을 즐겁게 하고 흥을 돋우는 목적으로 전사되었다. 이것은 오락성과 유희성, 해학성 등 詞體의 생성시기부터 갖고 있던 기본 기능으로서, 사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창작 태도라 할 수 있다. 황

6) 徐煜輝, 《黃庭堅戲題詩研究》, 安徽大學, 碩士, 2012, 10~12쪽.

정견 또한 유희를 목적을 하는 이 오락기능을 추구하며 “戲”의 의미에 충실한 사를 전사하였다. 그 예로 일상생활에서의 오락 활동 중 술을 마신 후 즐기는 민간 놀이인 打揭를 제재로 한 작품을 들 수 있다. 놀이의 과정과 방법, 놀이를 통한 즐거움 등을 자세히 기록한 이 회작사는 宋詞 중 흔치않은 제재를 읊은 작품이다.

〈鼓笛令〉 - 戲詠打揭.

고적령 - 재미삼아 打揭를 읊다.

酒闌命友閑爲戲,	술을 다 마시고는 벗에게
打揭兒,	打揭 놀이를 하자하니
非常愜意,	매우 즐겁구나.
各自輪贏只賭是,	각자 이기고 지는데 내기를 건다.
賞罰采、分明須記,	상이나 벌을 가려서 반드시 적어두네.

小五出來無事,	小五가 나오면 괜찮지만
却跋翻和九底,	跋翻하면 九底와 무승부네.
若要十一花下死,	만약 十一이면 花下가 죽으니
管十三、不如十二 <sup>7)</sup>	十三을 가리켜 十二 만 못하다하네.

打揭는 옛날 雙陸(바둑판)을 놀이 도구로 한 일종의 내기(도박)이다. 이 청조의 〈打馬圖序〉에 도박의 발전과정을 나열하면서 打揭를 언급하였는데, “또한 長行·葉子·博塞·彈棋는 근래에 전하지 않는다. 打揭·大小猪窩·族鬼·胡畫·數倉·賭快와 같은 부류는 모두 비속하여 경전에 보이지 않는다.”<sup>8)</sup>고 하였다. 打揭는 당시 연회자리에서 사람들과 하던 놀이로 구체적인 방법이 전하지는 않지만, 이 작품을 통해 그 당시 놀이문화의 일면을

7) 唐圭璋 編, 《全宋詞》, 中華書局, 2005, 407쪽.

8) “且長行·葉子·博塞·彈棋, 近世無傳. 若打揭·大小猪窩·族鬼·胡畫·數倉·賭快之類, 皆鄙俚不經見.” [宋] 李清照 著, 徐培均 箋注, 《李清照集箋注》, 上海古籍出版社, 2002, 341쪽.

엿볼 수 있다.

이 외에 文字 遊戲를 목적으로 전사한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集句”라는 형식을 빌려 전사하였으며 이 또한 오락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먼저 元豐 3년(1080) 혹은 그 이후에 전사된 것으로 보이는 <菩薩蠻>을 보면, 사서에 王安石의 <菩薩蠻>을 소개하고 자신이 이 사를 전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작품을 보자.

<菩薩蠻> - 王荊公新築草堂於半山, 引八功德水作小港, 其上壘石作橋. 爲集句云 “數間茅屋閒臨水, 窄衫短帽垂楊裏. 花是去年紅, 吹開一夜風. 梢梢新月偃, 午醉醒來晚, 何物最關情, 黃鸝三兩聲.” 戲效荊公作.

보살만 - 王荊公이 半山에 초당을 새로 짓고, 八功德水を 끌어다 작은 도랑(벉길)을 만들어, 그 위에 돌을 쌓아 다리를 만들고 集句詞를 지어 “몇 채 초가집 고요히 물가에 있고, 낡은 옷 짧은 모자 쓴 늙은이 수양버들 아래 있네. 꽃은 작년처럼 붉으니, 하룻밤 봄바람에 피었나 보다. 나뭇가지 끝에 초승달이 드리우고, 점심때 취하였다 밤이 되어 깨는구나. 무엇이 가장 사랑스러울까. 바로 피꼬리 우는 소리지.”라고 하니 재미삼아 荊公의 詞를 모방해 짓다.

半煙半雨溪橋畔.	반은 연기 반은 비오는 시냇가 다리 근처.
漁翁醉著無人喚.	고기 잡는 늙은이 취하여도 깨우는 사람이 없구나.
疏懶意何長.	얼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찌나 대단한지.
春風花草香.	봄바람에 花草가 향기롭다.

江山如有待.	강산이 만약 기다리는 바가 있다면,
此意陶潛解.	그 뜻은 도연명이 잘 알 것이니.
問我去何之.	어느 곳에 가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君行到自知 <sup>9)</sup>	그대 가보면 저절로 알거라 하겠지.

王安石의 <菩薩蠻>은 그가 만년에 江寧의 半山에 은거할 때 지은 작품

9) 唐圭璋 編, 위의 책, 399쪽.

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작품이다. 또한 한가로우면서도 고요한 意境을 나타냄으로써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대범한 마음으로 정신적인 위로와 해탈을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내용이다. 황정견은 이 사에서 광활하고 고요한 환경에 은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심정과 先哲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上片 첫 구의 출처는 唐代 시인 鄭谷의 詩 〈柳〉의 첫 구 “반은 연기 반은 비오는 시냇가 다리 근처.(半煙半雨溪橋畔.)”<sup>10)</sup>이며, 두 번째 구는 韓偓의 〈醉著〉 “어옹은 술 취했어도 부르는 이 없어, 한낮을 지나 깨어나니 하얀 눈 고깃배에 가득하네.(漁翁醉著無人喚, 過午醒來雪滿船.)”<sup>11)</sup>이다. 다음 두 구는 모두 杜甫의 시에서 가져온 것으로 〈西郊〉 “사람들이 오가는 걸 알 리 없으니, 얄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찌나 대단한지.(無人覺來往, 疏懶意何長.)”<sup>12)</sup>와 〈絕句二首〉중 其一의 “해가 길어져 강산은 아름답고, 봄바람에 화초 향기롭다.(遲日江山麗, 春風花草香.)”<sup>13)</sup>의 조합이다. 두보의 시의를 잘 표현하면서도 上片의 전체적 정서와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두보의 시구를 떠올리며 그 시의 전체적 詩境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구사의 또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下片은 江山의 뛰어난 형세를 적었다. 먼저 “江山如有待”는 두보의 〈後遊〉 중 “강산은 나를 기다리는 듯 하고, 꽃과 버들은 더욱이 사심이 없네.(江山如有待, 花柳更無私.)”<sup>14)</sup>에서 가져온 구절로 자신의 감정을 생명이 없는 강산의 자연에 이입하여 의인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은거생활을 한 도연명

10) “半煙半雨江橋畔, 映杏映桃山路中。會得離人無限意, 千絲萬絮惹春風。”中華書局編輯部, 《全唐詩》, 中華書局, 1992, 7730쪽.

11) “萬里清江萬里天, 一村桑柘一村煙。漁翁醉著無人喚, 過午醒來雪滿船。” 같은 책, 7792쪽.

12) “時出碧雞坊, 西郊向草堂。市橋官柳細, 江路野梅香。傍架齊書帙, 看題減藥囊。無人覺來往, 疏懶意何長。” 같은 책, 2433쪽.

13) “遲日江山麗, 春風花草香。泥融飛燕子, 沙暖睡鴛鴦。” 같은 책, 2475쪽.

14) “寺憶曾新遊處, 橋憐再渡時。江山如有待, 花柳更無私。野潤煙光薄, 沙暄日色遲。客愁全爲減, 捨此復何之。” 같은 책, 2442쪽.

을 떠올리며 두보의 〈可惜〉 중 “이 마음 도연명은 알고 있으려면, 내가 그대보다 늦게 태어났으니.(此意陶潛解, 吾生後汝期.)”<sup>15)</sup>란 시구를 이용하여 全詞의 주제(隱逸)를 이끌어내었다. 이 詞는 비록 전인들의 시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작가의 文才로서 하나의 주제로 긴밀히 연결되어 原句보다 더 풍부한 미학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처럼 전인의 시구를 사용한 점철성금의 작사 방법 외에도 동시대 문인들의 작품을 모방하여 전사한 문자 유희의 작품들도 있다. 그 예로 소문 사학사의 일원인 秦觀의 사 〈河傳〉(恨眉醉眼)의 마지막 구 “悶損人、天不管”를 이용하여 〈河傳〉(心情老嬾)을 지었다. 그 제서에 “어떤 사대부 집에 진관의 ‘瘦殺人、天不管(굵고 여위어 사람이 죽어도 하늘은 관여치 않는다)’를 노래하였다. ‘好’자로 ‘瘦’자를 바꾸었길래 그것을 장난삼아 짓다.(有士大夫家, 歌秦少游‘瘦殺人、天不管’之曲, 以好字易瘦字<sup>16)</sup>, 戲爲之作.)”라고 밝혔다. 앞서 보았던 〈菩薩蠻〉은 집구한 작품들과 原詞의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河傳〉은 두 작품 간의 공통된 주제나 풍격이 보이지 않는다. 진관의 〈河傳〉은 여인과 같이 있길 바라지만 결국 같이 할 수 없는 남자의 슬픈 감회를 적었고, 황정건의 〈河傳〉은 한 남성이 연회에서 옛 사랑을 만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이 두 사는 과거의 여인을 회상하는 점은 같지만<sup>17)</sup>, 황정건의 사는 그 上片에서 볼 수 있듯이 “교태로운 웃음과 단장한 얼굴, 요즘 나는 노쇠한 얼굴과 반백의 귀밑머리.(巧笑靚妝, 近我衰容華鬢.)”라고 하여 흐르는 세월을 탄식하는 작가의 자조적인 한탄이 주 내용이다. 그러므로 황정건은 단지 문자 유희

15) “花飛有底急, 老去願春遲。可惜歡娛地, 都非少壯時。寬心應是酒, 遣興莫過詩。此意陶潛解, 吾生後汝期。” 같은 책, 2440쪽.

16) 淸道光 丁酉年(1837)에 王敬之가 高郵에서 관각한 《淮海集》의 《淮海詞》에는 “瘦殺人”으로 되어있고 다른 판본의 《淮海詞》에는 모두 “悶損人”으로 기록되어 있음.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 上海古籍出版社, 2001, 107쪽.

17) 秦觀의 〈河傳〉 上片에 “언제나 그 때를 잊지 못하네. 작은 난간의 서쪽 가에서, 머리 풀고 버선발로 다가오던 그 모습(常記那回, 小曲闌干西畔。鬢雲鬆、羅襪剗)”이라 하였고, 黃庭堅의 〈河傳〉 下片에서는 “가끔씩 생각하는 그해 만남. 술 마시길 거듭 재촉한다.(思量好箇當年見, 催酒催更.)”고 함.

를 목적으로 진관의 詞句를 가져다 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漁家傲〉의 詞序에 “강녕 강어귀에 거친 바람이 불어, 재미삼아 寶寧勇禪師가 옛날에 지은 〈漁家傲〉를 본떠 지으니, 왕환중이 廬山에 있는 이가 이 사를 매우 갖고 싶어 한다하여 깊이 생각하고 비로소 네 편을 짓는다. (江寧江口阻風, 戲效寶寧勇禪師作古漁家傲, 王環中云, 廬山中人, 頗欲得之, 試思索, 始記四篇.)”고 하여, 寶寧勇禪師의 〈漁家傲〉를 모방하여 전사하였음을 밝혔다. 비록 승려 寶寧勇禪師의 〈漁家傲〉는 산실되었으나, 북송의 승려 惠洪이 자신의 詞 〈漁家傲〉아래에 “寶寧勇禪師가 덕행 높은 승려들의 전해오는 事蹟을 읊은 것을 재미삼아 모방하다.(戲效寶寧勇禪師咏古德遺事)”<sup>18)</sup>라고 詞題를 기록하여 그 사가 존재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황정건의 이 〈漁家傲〉 4수는 모두 禪詞로서 불교의 철리와 승려들의 고사를 주 내용으로 하였으며, 《五燈會元》·《景德傳燈錄》·《佛國記》 등 불교 서적에서 전고를 사용하여 전사하였다.<sup>19)</sup>

詞가 유희적 수단으로 전사되는 경우, 작가들의 교류 활동을 통해 창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인들 혹은 동료 및 관료들과의 모임에서 재미를 위해 전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작사를 통해 작가의 교류 생활 또한 엿 볼 수 있다.

그 예로 〈減字木蘭花〉의 사서에 “병자년 중추에 黔州 태수가 여러 사람을 모은 자리에, 한 객이 岑嘉州의 〈中秋〉詩를 들어 ‘오늘 밤 부주에 뜬 달, 규중에서 홀로 보겠네. 멀리서 어린 자식들을 가련히 여기니, 장안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겠지.’라고 하여 재미삼아 짓다.”<sup>20)</sup>고 하였

18) 唐圭璋 編, 위의 책, 710쪽.

19) 이 4수의 작품에서 불교 서적의 전고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먼저 〈漁家傲〉(三十年來無孔竅)에서는 《景德傳燈錄》 2회, 《五燈會元》 3회, 《維摩經》 1회이고, 〈漁家傲〉(憶昔藥山生一虎)에서는 《五燈會元》 7회, 〈漁家傲〉(百丈峯頭開古鏡)에서는 《景德傳燈錄》 1회, 《五燈會元》 2회임. 그 예로 〈漁家傲〉(萬水千山來此土)에서 上片 5句와 下片 첫 구(面壁九年看二祖) 및 두 번째 구(一花五葉親分付)는 《景德傳燈錄》에서 전고를 취하였고, 下片 세 번째 구(集履提歸葱嶺去)는 《景德傳燈錄》卷3과 《五燈會元》卷1에서 전고를 취함. 자세한 출처는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 86~94쪽 참고 바람.

다. 여기서 말한 김주의 태수는 曹譜로 字는 伯達이며<sup>21)</sup> 황정견이 김주에서 생활할 때 잦은 교류를 가진 관리이다. 《黃山谷年譜》에 보면 “산곡이 처음 黔南에 도착하였다. 曹譜伯達과 張銑茂宗이 守貳였으며 매우 돈독히 대우하였다. 산곡은 〈與張書和書〉에서 ‘내가 黔州에 이른 지가 장차 한 달이 되어간다. 曹守와 張倅가 혈육처럼 대해준다.’라고 하였고, 또 〈與楊明叔書〉에서 ‘守倅는 모두 京洛사람이다. 섬기길 좋아하고 문필을 숭상하니 쉽게 얻지 못함이다.’라고 하였다.<sup>22)</sup> 황정견이 비록 黔州에 좌천되었으나 그 지역 관리들은 황정견을 각듯이 대우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축지에서 문인집회에도 참여하고 詩詞唱和도 하면서 교육활동에도 종사하였다. 그의 높은 학식과 곧은 인품 및 축지 문인들과의 돈독한 우정은 그 지역 인들에게 추대와 존경을 받기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또 〈醉落魄〉의 詞序에 “.....고로 네 편을 재미삼아 지어 吳元祥과 黃中行에게 보여주니, 아마 두 공이 마음속 생각을 말하기 꺼려할 수 있을 것이다.(因戲作四篇, 呈吳元祥·黃中行, 似能厭道二公意中事.)”라고 하여 吳元祥和 黃中行과의 교류를 적었다. 오원상은 眉山 사람으로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황정견은 그를 “陶兀居士”라고 불렀다. 황정견은 詩 〈陶兀居士贊〉을 지어 그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黃中行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선비로 戎州에 있을 때 알게 된 인물이다. 또 〈漁家傲〉의 詞序를<sup>23)</sup> 통해 비록 생평을 알 수는 없

20) “丙子仲秋黔守席上, 客有舉岑嘉州中秋詩曰‘今夜鄜州月, 閨中只獨看. 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因戲作.” 같은 책, 391쪽.

21) 〈水龍吟〉(早秋月明新圓)과 〈減字木蘭花〉(中秋多雨)의 제서에도 언급함.

22) “任淵《年譜》云‘山谷初到黔南. 曹譜伯達·張銑茂宗爲守貳, 待之頗厚. 山谷〈與張書和書〉云某至黔州將一月矣, 曹守·張倅相待如骨肉. 〈與楊明叔書〉云守倅皆京洛人, 好事尚文, 不易得也.’” 鄭永曉 著, 《黃庭堅年譜新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278쪽.

23) “강녕 강어귀에 거친 바람이 불어, 재미삼아 보녕용선사가 옛날에 지은 어가 오를 본떠 지으니, 王環중이 ‘려산에 있는 이가 이 사를 매우 갖고 싶어 한다’ 길래 깊이 행각하고 비로소 네 편을 짓다.(江寧江口阻風, 戲效寶寧勇禪師作古漁家傲, 王環中云‘廬山中人, 頗欲得之’ 試思索, 始記四篇.)” 唐圭璋 編, 위의 책, 397쪽.

으나 그의 벗으로 짐작되는 王環中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정견은 당시 놀이(오락 활동)를 사의 제재로 읊거나, 文字 遊戲의 수단으로, 또한 주변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유희 활동의 표현을 목적으로 희작사를 창작하였다.

### Ⅲ. 眞情의 표현을 위한 서정기능 실천

王國維는 《人間詞話》에서 “詩人들은 모든 사물들을 모두 遊戲의 소재로 보았다. 그 遊戲는 열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해학성과 심각성 두 가지 성질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sup>24)</sup>고 하였다. 戲作詞 역시 “戲”라는 글자만으로 詞의 오락기능에 취지를 둔 문인의 창작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정견의 희작사를 보면 비록 연회 자리나 음주 후 전사한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그 주요 내용은 작가의 眞情을 표현하기 위해 사의 서정기능을 추구하였다.

紹聖 3년(1096) 黔州에서 지은 작품 〈謁金門〉에 “아우 知命에게 재미삼아 보낸다.(戲贈知命)”는 사제를 적어두었다.

山又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行盡吳頭楚尾.	룻나라 땅과 楚나라 땅을 다 지나왔네.
兄弟燈前家萬里,	형제는 등불 앞에 마주하지만 집은 만리 밖이라네,
相看如夢寐.	서로 보고 있자니 꿈만 같구나.
君似成蹊桃李,	그대는 복숭아와 오얏나무 아래 길이 나는 이치와 같은 사람,
入我草堂松桂.	내 초당에는 소나무와 계수나무가 있다네.
莫厭歲寒無氣味,	날이 추운걸 싫어하지 말아야지 그럴 마음도 없으니,

24) “詩人視一切外物，皆遊戲之材料也。然其遊戲，則以熱心爲之。故談諧與嚴重二性質，亦不可缺一也。” 王國維, 《人間詞話》, 上海古籍出版社, 2009, 118쪽.

餘生吾已矣.<sup>25)</sup>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이미 다되었다네.

上片에서는 형제가 멀리 만리 밖에서 서로 만나 마치 꿈을 꾸는 듯하다는 내용으로서 평상시에 아우를 많이 그리워했던 마음을 볼 수 있다. 또 下片에서는 아우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유배되어 지내는 곳의 황량하고 적막한 환경을 묘사하였으며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를 부각시켰다. 全詞에서 평이한 어휘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형제간에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진실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마지막 두 구는 현실로 눈을 돌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작품이다.

같은 시기에 전사한 〈減字木蘭花〉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眞情을 표현하였다.

〈減字木蘭花〉 - 丙子仲秋黔守席上, 客有舉岑嘉州中秋詩曰‘今夜鄜州月, 閨中只獨看. 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因戲作.

감자목란화 - 丙子年 仲秋에 黔州 태수 曹譜가 여러 사람을 모은 자리에, 한 객이 岑嘉州의 中秋詩를 들어 “오늘 밤 鄜州에 뜬 달, 규방에서 홀로 보겠네. 멀리서 어린 자식들을 가련히 여기니, 長安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겠지.”<sup>26)</sup>라고 하여서, 장난삼아 짓다.

舉頭無語,	머리 들어 하늘을 보니 말이 없고,
家在月明生處住.	집은 밝은 달이 뜨는 곳에 있다네.
擬上摩圍.	摩圍山에 올라,
最上峯頭試望之.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그곳을 바라보네.

25) 唐圭璋 編, 위의 책, 396쪽.

26) 詞序에 인용된 작품은 杜甫의 〈月夜〉이며, 岑嘉州은 嘉州刺史를 역임한 唐岑參을 가리킴.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에, 龍榆生 校本, 《豫章黃先生詞》에 기재된 “山谷은 杜詩에 정통한 자이므로 잘못 기록했을 리가 없다. 다만 세상에 여러 판본의 黃詞가 전해지면서 모두 이렇게 기재하였다. 지금 杜集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는데 또한 의심이 남는다.”는 注를 인용하고, 四庫本에서도 “杜工部”라 하였음을 밝힘.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 上海古籍出版社, 2001, 229쪽.

偏憐絡秀,	가련한 絡秀,
苦淡同甘誰更有.	고락을 함께하는 이 누가 또 있으리.
想見牽衣,	옷자락을 붙잡고 생각하네.
月到愁邊總不知 <sup>27)</sup>	달빛이 시름을 비추어도 다 알지 못하네.

詞序에 인용된 杜甫의 〈月夜〉시 또한 멀리 떨어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유배지에 홀로 떨어진 작가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황정견은 〈月夜〉詩를 듣고 思鄉을 주제로 위 작품을 전사하였다. 上片에서는 자신이 멀리 蜀地에 있으니 높은 산에 올라 고향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는 작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下片에서도 《列女傳》에 나오는 東晉 周顥의 어머니 絡秀의典故를 사용하여 자신의 아들 相의 생모인 李慶을 비유하면서 고락을 함께했던 가족들을 떠올리며, 시름에 찬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밝게 비추는 달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全詞에서 작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실히 나타내었다.

그의 희작사에 나타나는 또 다른 작가의 정서는 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황정견의 詞序 가운데 가장 긴 條는 총 133字로 〈醉落魄〉을 짓게 된 동기를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은 옛날 〈醉醒醒醉〉곡 한 수가 있었는데 소식이 지은 것이라 전하지만 王仲父가 지은 것으로 의심되며, 재미삼아 네 수를 지어 吳元祥과 黃中行에게 보여 주게 되었다는 내용이다.<sup>28)</sup> 이 네

27) 唐圭璋 編, 위의 책, 391쪽.

28) “옛날 〈醉醒醒醉〉곡 한 수가 있었는데 ‘취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또 취하니, 그대여 이 맛을 좀 알아보오. 호박술을 듬뿍 따라 좋은 술이 슬픈 마음으로 들어가면 또한 따스한 봄기운이 생긴다오. 장막을 천지로 삼고 노래 앞에서 춤추고 꽃 앞에서 잠을 자오. 술에 빠져 뜻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정신은 또렷또렷 너무나 맑아 공연히 번민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오.’이다. 이 곡 또한 佳句가 있지만 지나치게 다듬어 부자연스러운 곳이 많고, 또한 말의 높고 낮음이 音律에 그다지 맞지 않는다. 혹 東坡가 지은 것이라 전하지만 아니다. ‘蝸角虛名’, ‘解下癡條’의 곡과 비슷하나 王仲父가 지은 것으로 의심된다. 고로 네 편을 재미삼아 지어 吳元祥과 黃中行에게 보여주니, 아마 두 공이 마음속

수의 작품은 元符 2년(1099) 戎州에서 전사하였다. 그 중 한 수를 보자.

陶陶兀兀,	즐겁게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니,
醉鄉路遠歸不得.	술에 취해 길이 멀어 돌아가질 못한다.
心情那似當年日.	마음만은 그 때와 같다네.
割愛金荷,	아쉽게도 金荷(술잔)를 버리고,
一盞淡不托.	한 그릇 맑은 수제비로 대신하네.

異鄉薪桂炊蒼玉.	타향에서 계수나무 뿔감을 하고 향옥으로 밥을 짓네.
摩挲經笥須知足.	상자를 어루만지며 모름지기 만족할 줄 알아야지.
明年細麥能黃熟.	내년엔 여린 보리 능히 누렇게 익겠지.
不管輕霜,	얼은 서리 상관없이,
點盡鬢邊綠 <sup>29)</sup>	귀밑 검은머리 다 쉬었네.

작가는 술을 마시고 난 후의 감개를 표현하면서, 비유 수법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蜀地에서의 처량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무덤덤하게 적어 내려 간 듯하지만 결국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가슴속 서글픈 심정을 표현하였다. 詞序에서 비록 “재미삼아” 적어서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유배지에서 느껴지는 서글픔과 늙어감이 한스러운 작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 외에 〈河傳〉에서도 나이 들어 늙었음을 한탄하는 감정을 표출하였다. 〈河傳〉의 편년이 정확하진 않지만, 진관의 〈河傳〉이 元祐年間に 전사되었기 때문에 元祐이후에 전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내용을 보자.

생각을 말하기 꺼려할 것이다. (舊有醉醒醒醉一曲云‘醉醒醒醉，憑君會取這滋味。濃斟琥珀香浮蟻。一入愁腸，便有陽春意。須將席幕爲天地，歌前起舞花前睡。從他兀兀陶陶裏，猶勝醒醒，惹得閑憔悴。’此曲亦有佳句，而多斧鑿痕，又語高下不甚入律，或傳是東坡語，非也。與蝸角虛名、解下癡條之曲相似，疑是王仲父作。因戲作四篇呈吳元祥、黃中行，似能厭道二公意中事。) 같은 책, 395쪽.

29) 같은 책, 395쪽.

〈河傳〉 - 有士大夫家歌秦少游“瘦殺人、天不管”之曲。以好字易瘦字，戲爲之作。

하전 - 어떤 사대부 집에 진관의 “瘦殺人、天不管(굵고 여위어 사람이 죽어도 하늘은 관여치 않는다)”는 곡을 노래하였다. 好자로 瘦자를 바꾸었길래 재미삼아 짓다.

心情老懶,	마음은 늙고 게을러도,
對歌對舞,	노래하고 춤을 추니,
猶是當時眼.	여전히 그 때 그 눈동자이네.
巧笑靚妝,	교태로운 웃음과 단장한 얼굴,
近我衰容華鬢.	요즘 나는 노쇠한 얼굴과 반백의 귀밑머리.
似扶著、賣卜算.	간신히 기댄 채로 점을 친다네.

思量好箇當年見.	가끔씩 생각하는 그해 만남.
催酒催更,	술 마시길 거듭 재촉하니,
只怕歸期短.	단지 돌아갈 때가 짧은 것이 걱정이네.
飲散燈稀,	술을 마시고 돌아가니 불빛이 드문드문,
背鎖落花深院.	등 뒤로 꽃이 떨어진 深院은 잠겨 있구나.
好殺人、天不管. <sup>30)</sup>	좋아서 사람이 죽어도 하늘은 관여치 않으니.

먼저 上片에서 작가는 연회에서 젊고 아름다운 歌妓를 만났지만 자신은 이미 늙고 쇠약한 모습임을 묘사하였다. 하편은 잠시 옛날 추억을 회상하며 그 때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출하고 흘러가는 세월을 탄식하는 심정의 내용이다.

황정견은 분명 제서에서 “재미삼아 혹은 장난삼아(戲)” 전사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등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眞情의 표출은 그의 회작사에 나타나는 창작 태도로서 그가 蜀地에서 지은 戲題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서이다. 그가 蜀地

30) 같은 책, 413쪽.

에서 창작한 戲題詩 5首의 내용을 살펴보면, 紹聖 3년에 지은 〈戲答劉文學〉은 두려움을 모르는 활달한 작가의 성격을 표현하였고, 元符 2년에 지은 〈戲咏子舟畫兩竹兩鸛鶴〉는 사물의 이치 통찰하는 내용이며, 〈戲題賦老所作兩竹梢〉는 소소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元符 3년에 지은 〈戲贈家安國〉은 한 인물에 대해 읊었으며, 〈戲答王居士送文石〉은 선물을 주고받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戲題詩는 戲作詞와 달리 자신의 괴로운 처지의 한탄이나 그리움과 같은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sup>31)</sup>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진실하게 표현한 것은 바로 황정견의 또 다른 희작사의 창작 태도라 할 수 있다.

#### IV. 宋代 戲作詞 창작 경향

본절에서는 북송후기에서 남송에 이르기까지 대표 사인들의 희작사 창작 경향을 분석 정리하여 황정견의 희작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宋代 희작사 창작에 있어서의 황정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北宋後期 사인들의 희작사를 살펴보자.

北宋後期の 사인 毛滂은 7首의 희작사를 전사하였다. 그는 연회석상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감흥이나 아내 혹은 기녀, 벗들과의 옛일을 회상하는 내용의 희작사를 전사하였다. 또한 희작사 제서의 편폭이 길어지면서 〈玉樓春〉(泥銀四壁盤蝸篆)의 詞序가 99字에 달한다. 제서의 편폭이 길어진 것은 周紫芝의 희작사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는 8수의 희작사를 지었는데 사의 제서가 대부분 20字 이상이며, 높은 곳에 올라 유람하는 즐거움이나 벗들을 웃게 하는 진실한 감정들을 표현하였다. 희작사 제서의 편폭이 긴 것은 사실 황정견의 희작사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의 희작사 題序 중 가장 긴 것은 〈醉落魄〉의 詞序로 132字이며 그 다음은 95字, 77字이다. 20字 이상의 제서가 7條나 된다. 周紫芝는 학문 수양과

31) 黃庭堅의 戲題詩 5首의 내용은 徐煜輝, 앞의 논문, 21~30쪽, 35~40쪽 참고.

문학 창작면에서 소식과 황정견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竹坡詩話》에서 “魯直의 시에 이르길 ‘꽃향기에 젖어 선정을 깨려하니, 마음과 뜻은 이미 중년을 넘어섰네. 봄이 오니 詩想은 어떠한지, 八節灘 나루에서 배에 오른다.’ 山谷은 전인의 말을 點化하였는데 그 기묘함이 이와 같아 詩 속에 오묘한 숨씨가 나타난다.”<sup>32)</sup>고 하며 황정견의 시가 창작 수법을 칭송하였다.

南渡時期 19首의 희작사를 전사한 向子諲은 불학의 조예가 높아 심오한 불학적 道理를 詞에 반영하였다. 그 중 17수의 사가 불교와 관련된 禪悅을 주제로 한 희작사이며, 禪師들과의 창화나 佛禪을 배우는 이들과 참선하여 禪理를 깨닫는 내용이다. 〈點絳脣〉의 제서에 “薊林老人이 소흥 갑인년 중추절에 두 세 선사들과 寶林山에서 달을 감상하니 장난으로 장단구를 지으니 세속에서 〈點絳脣〉이라 부른다.”<sup>33)</sup>라고 하여 산 속 달빛 아래 작가와 승려들이 마주앉아 참선하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向子諲은 어렸을 적 元祐名士인 劉安世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소식과 우정이 돈독한 劉安世의 영향으로 向子諲은 어려서부터 소식의 학풍과 인품을 흠모하게 되었다. 또 蘇堅과 徐俯와도 자주 모임을 가졌는데, 蘇堅은 소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서로 창화한 시가 많으며, 徐俯는 向子諲의 생질인 張元幹에게 詩法을 가르쳐주었고 그 자신은 황정견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이렇듯 向子諲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식과 황정견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사 제서에 소식과 황정견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칭송하였다. 사실 가장 먼저 戲作詞에 불교적 내용을 읊은 사인은 황정견으로 〈漁家傲〉 4首에서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승들의 전고를 사용하여 “戲”의 의미에 일종의 심미적 즐거움과 철리적 사고를 나타내었다.<sup>34)</sup>

南宋初期 張孝祥 또한 4首의 희작사를 지었다. 그의 희작사 제서를 보

32) “魯直詩曰 ‘花氣薰人欲破禪，心情其實過中年。春來詩思何所似，八節灘頭上水船。’ 山谷點化前人語，而其妙如此，詩中三昧手也。” 吳文治 主編，《宋詩話全編·竹坡詩話》，江蘇古籍出版社，1998，2826쪽.

33) “薊林老人，紹興甲寅中秋，與二三禪子對月寶林山中，戲作長短句，俗呼點絳脣。” 唐圭璋 編，위의 책，963

34) 何亞靜，《宋代戲作詞研究》，東華理工大學，碩士，2011，18쪽.

면 〈鵲橋仙〉(明珠盈門) “오백승의 시녀에게 재미삼아 지어준다.(戲贈吳伯承侍兒)”, 〈踏莎行〉(洛下根株) “장사의 목단 꽃이 너무 작아 재미로 이사를 지어 또한 두 가지로 伯承과 欽夫 벗을 위해 술 한 잔을 올린다.(長沙牧丹花極小, 戲作此詞, 并以二枝爲伯承·欽夫諸兄一觴之薦)”, 〈醜奴兒〉(十年聞說查山好) “왕공택이 나를 위해 查山の 빼어남을 말하니, 재미삼아 지어 보내다.(王公澤爲予言查山之勝, 戲贈)”, 〈浣溪沙〉(羅生塵洛浦東) “馬夢山에서 기녀와 헤어진 것을 재미로 차운하다.(次韻戲馬夢山與妓作別.)”로 벗 혹은 기녀와의 교류를 주제로 전사하였다. 즉 자신의 교류생활을 작품의 제재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의 사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류의 즐거움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 태도는 희작사 창작을 집대성한 南宋 詞人 辛棄疾에게서도 나타나난다.

辛棄疾은 총 26首의 희작사를 전사하였으며, 그 중 11首의 희작사가 贈友나 酬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그 예로 慶元 6년(1200)에 전사한 〈念奴嬌〉를 보면 “내가 부암수의 매화 두 그루를 사로 지었는데 부군용이 자리에서 칭하여 말하길 ‘집에 오래된 매화나무 네 그루가 있는데 올해가 백년이 되었으나 아직 남긴 글이 없으니 香月堂의 본보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기쁘게 허락하고 또 앞의 형식을 써서 재미삼아 짓다.”<sup>35)</sup>고 詞序를 병기하였다. 비록 부군용이란 인물에 대해 알 길은 없지만 그의 사교생활과 교류를 통해 즐거워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 같은 해에 瓢泉에서 지은 〈浣溪沙〉의 사제에 “杜叔高, 吳子似와 함께 산사에 머무르며 재미삼아 짓다.(借杜叔高·吳子似宿山寺戲作.)”고 하여 두 벗들과 산사에서 지낸 일을 적었다. 原詞에서는 산사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정사를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간 자신의 감회를 읊었다. 역시 瓢泉에서 전사한 〈行香子〉의 사제에도 “博山에서 趙昌甫와 韓仲止에게 재미삼아 지어 보내다.(博山戲呈趙昌甫, 韓仲止.)”고 하여 벗들과의 교류 활동을 알 수 있다. 황정건의 희작사 창작 태도에서도 보여진 교류를 통한 유희 활동의 표현

35) “余既爲傳巖叟兩梅賦詞, 傳君用席上有請云‘家有四古梅, 今百年矣, 未有以品題, 乞援香月堂例.’欣然許之, 且用前篇體制戲賦.” 같은 책, 1948쪽.

외에도 작가의 진실한 감정 표현 또한 신기질의 희작사에서 볼 수 있다. 慶元 6年(1200) 瓢泉에서 전사한 〈鷓鴣天〉 제서에 “어떤 손님이 한탄하면서 공명을 이야기하길래 젊었을 때의 일을 회상하다가 재미삼아 짓다.(有客慨然談功名, 因追念少年時事, 戲作.)”라고 하였다. 그러나 原詞의 내용을 보면 제서와 달리 장난삼아 단지 재미로 지었다고 볼 수 없다.

壯歲旌旗擁萬夫, 錦襜突騎渡江初。 燕兵夜妮銀胡韉, 漢箭朝飛金僕姑。	한창나이에 깃발 날리며 만 명을 거느리고 비단옷 입은 돌격대 처음으로 강을 건넜네. 금나라 병사는 밤에 화살통을 정돈하고 우리 군사는 아침에 금복고 화살을 날렸네.
--	--

追往事, 歎今吾, 春風不染白髭鬚。 却將萬字平戎策, 換得東家種樹書。 <sup>36)</sup>	지난 일 회상하면서 지금의 나를 탄식하니 봄바람도 흰 콧수염을 물들이지 못하네. 만 자나 되는 오랑캐 평정할 계책을 동쪽 이웃집의 나무 심는 책과 바꾸었네.
---	---

이 시는 젊은 시절 劬에 대항했던 과거와, 할 일없이 쓸쓸히 지내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북받쳐 오르는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었다. 젊은 시절 야심차게 품고 있던 공명과 그 후 뜻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상실감은 작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비록 “戲作”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비분에 찬 마음을 위로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 淳熙 15년(1188) 48세에 지은 〈八聲甘州〉의 詞序를 보면, “밤에 《李廣傳》을 읽고 잠을 들 수 없었다. 晁楚老, 楊民瞻과 산속에서 같이 살자고 약속한 것이 생각나, 재미삼아 李廣의 고사를 가지고 이 詞를 지어 보낸다.(夜讀《李廣傳》, 不能寢. 因念晁楚老楊民瞻約同居山間, 戲用李廣事, 賦以寄之.)”고 하여 전사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였다. 작가가 장난으로 벗에게 보낸다는 詞에서 그의 침울하고 비분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36) 같은 책, 1943쪽.

작가의 감개가 잘 드러난 下片을 보자.

誰向桑麻杜曲,	누가 杜曲의 뽕나무와 삼마 밭으로 향할까?
要短衣匹馬,	짧은 옷과 한 마리 말로
移住南山.	남산으로 옮겨 가 살아야지.
看風流慷慨,	풍유와 강개에 차서
談笑過殘年.	담소하며 여생 보내는 것 보리라
漢開邊,	한나라는 변경을 넓혀
功名萬里,	공명을 만 리에 떨쳤으니
甚當時健者也曾開.	왜 당시에 재주 있는 사람은 벼슬이 없었는지
紗窗外,	창 밖에
斜風細雨,	가랑비가 바람에 비껴 내리니
—陣輕寒. <sup>37)</sup>	갑자기 싸늘함이 전해온다.

속세를 떠나 같이 산속에 은거하며 살자는 벗에게 때를 만나지 못한 비분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 감정이 너무나 진실하여 슬픔과 비분한 정서가 읽는 이를 감동시킨다. 이 외에도 慶元 2년(1196) 전사한 〈水調歌頭〉의 사서를 보면 “장차 새 거처로 옮기려했으나 다 완성되지 않아 감회가 있어 장난삼아 지었다. 이 때 병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했고 또 가기를 보내었으니 마지막 장에서 말하겠다.(將遷新居不成, 有感, 戲作. 時以病止酒, 且遣去歌者, 末章及之.)”고 하였다. 이 사는 신기질이 帶湖에 지내다가 瓢泉으로 옮기는 와중에 조금은 과장되고 해학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퇴거생활의 청렴함을 스스로 지키려는 뜻과 처량하고 쓸쓸한 점정을 나타내었다. 또 淳熙 3년(1192)에 지은 〈添字浣溪沙〉도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는 비분한 심정을 적었는데 “三山(福州의 별칭)에서 장난삼아 짓다”(三山戲作)라는 제서를 병기하였다. 이처럼 신기질의 희작사는 다양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였는데 황정건의 희작사에서 보여지는 특징과 비슷하다. 희작사 창작 시기 또한 瓢泉에 은거했을 당시

37) 같은 책, 1912쪽.

전사한 것이 많은데 이 점 또한 황정견이 蜀地에서 희작사를 전사한 상황과 비슷하다. 즉 관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북송 후기부터 남송에 이르기까지 몇몇 작가들의 희작사를 살펴본 결과 황정견의 작품과 유사한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물론 북송 중기 이후 모든 희작사 창작이 황정견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의 유사한 특징들을 통해 황정견이 宋代 戲作詞 창작에 일조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 V. 나가며

蘇門四學士의 일원이자 江西詩派의 창시자인 黃庭堅은 詩와 書 방면에 높은 성취를 거두었으며, 詞 또한 190여 首를 지어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황정견은 18首의 戲作詞를 전사하여 그 시작을 알렸다.

본 연구는 황정견의 희작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작가의 창작 태도와 후대 희작사의 창작 경향을 살펴보았다. 황정견이 비록 제서에 “戲”라는 기본 창작 태도를 밝혔지만 단지 유희적 태도로서 전사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진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도 또한 다양한 내용의 주제를 표현함으로써 그의 희작사는 사의 유희적, 오락적 기능과 서정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는 작가의 창작 태도와 일치한다. 또한 황정견 이후 南宋에 이르기까지 사인들의 희작사 창작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황정견 희작사의 “戲”의 의미와 기능이 후대 희작사와 유사함을 볼 수 있었으며 송대 희작사 창작에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송대 희작사 창작의 내용 범위를 넓히고 그 경계를 향상시킨 黃庭堅 戲作詞 창작의 의의와, 宋詞史에 있어 黃庭堅詞의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다.

<References>

1. An editorial department Zhonghua Publishing House. *Quan Tang Sh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92.
2. He Yajing. *The Study of Xi Zuo Ci of Song Dynasty*. Donghu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thesis, 2011.
3. Li Qignzhao, Xu Peijun. *Li Qignzhao Ji Jianzhu*.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2.
4. Ma Xingrong, Zhu Zhenyu. *Shan Gu Ci*.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1.
5. Tang Guizhang. *Quan Song C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5.
6. Wang Guowei. *Ren Jan Ci Hua*.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9.
7. Wang Yi. *Study on Pai Xie Ci of Song Dynasty*. Nangjing Norm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3.
8. Wang Zhaopeng&Liu Zunming. *Song Ci Da Ci Dian*. Nanjing: Fenghuang Press, 2003.
9. Wu Wenzhi. *Song Shi Hua Quan Bian*. Nanjing: Phoenix Publishing House, 1998.
10. Xu shen&Duan Yucai. *Shuo Wen Jie Zi*. Seoul: A free library, 2015.
11. Xu Yuhui. *The Research of Huang Tingjian's Xiti Pomes*. Anhu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12. Zheng Yongxiao. *Huang Tingjian Nianpu Xinbian*. Beijing: Social Science Academic Press, 1997.

< 참고문헌 >

1. 中華書局編輯部, 《全唐詩》, 中華書局, 1992.
2. 何亞靜, 《宋代戲作詞研究》, 東華理工大學, 碩士, 2011.
3. 李清照 著, 徐培均 箋注, 《李清照集箋注》, 上海古籍出版社, 2002.
4. 馬興榮, 祝振玉 校注, 《山谷詞》, 上海古籍出版社, 2001.
5. 唐圭璋, 《全宋詞》, 中華書局, 2005.
6. 王國維, 《人間詞話》, 上海古籍出版社, 2009.
7. 王毅, 《宋代俳諧詞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 2003.
8. 王兆鵬, 劉尊明 主編, 《宋詞大辭典》, 鳳凰出版社, 2003.
9.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江蘇古籍出版社, 1998.
10. 許慎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 자유문고, 2015.
11. 徐煜輝, 《黃庭堅戲題詩研究》, 安徽大學, 碩士, 2012.
12. 鄭永曉 著, 《黃庭堅年譜新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 Abstract >

Although Xi Zuo Ci starts from Su Shi, but The first one to write more Xi Zuo Ci is Huang Tingjian. Huang Tingjian is one of the *Su Men* Literary Group and initiator in School of Jiangxi Poets. He has achievements in Poetry and Calligraphy. He wrote about 190 Ci, there are 18 Xi Zuo Ci. The objective was to explore the creative attitude and future writing tendency of Huang Tingjian's Xi Zuo Ci.

Huang Tingjian was there writing basic creative attitude of Ci, as write a “Xi(戲)” in the preface. But He's not just writing for “Play(遊戲)” position, showed his true feelings. He indicates The function of play and

entertainment and emotion, thereby shows a variety of content. It's consistent with the writer's the creative attitude. In addition, We know that his Xi Zuo Ci is similar to the meaning and function of Xi Zuo Ci of his later generations. it influenced on the creation of Xi Zuo Ci in the Song Dynasty, can boost the creative activities of Xi Zuo Ci.

Through this study, could find out the creative significance of Huang Tingjian's Xi Zuo Ci, he widened the scope of Xi Zuo Ci creation in the Song Dynasty. It could prove the important position of Huang Tingjian in the history of Song Ci.

Key Words : 황정건(Huang Tingjian), 희작사(Xi Zuo Ci), 송사(Song Ci)